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단풍은 지고 천지간에는 쇠락과 소멸의 예감으로 가득 찬다. 곧 북풍의 계절이 다가온다. 한해살이 풀들은 시들고 꽃대는 바스라지고 줄기는 바짝 마른 채 서거거린다. 한해살이 풀들은 씨앗을 떨근 채로 흑한을 견뎌내고 이듬해야 다시 꽃망울을 맺고 어린 잎을 피워낼테다. 들에는 미처 거두지 못한 배추들 잎이 얼고 물러서 땅에 달라붙는다. 밤에는 어린 고라니들이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울어댄다. 어린 고라니들은 태어나서 처음 밟은 추위에 잔뜩 겁을 먹은 것이다.

봄 여름은 만물이 싹을 틔우고, 뻗고, 파우고, 자라는 계절이다. 녹음은 울창하고 뿔 생명들은 변창한다. 밤엔 저 광활한 우주에서 날아온 별뿔뿔이 공중에 빛금을 그으며 반짝하고 타오르다가 꺼진다. 전기 누전으로 불꽃이 튀듯 찰나로 반짝하다 이내 사라지는 것. 그제 우리 생이 아닌가? 내가 갈망하는 것을 거머쥘 수 없다면 오직 가질 수 있는 것과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갈망하라! 뜨겁게 갈망하고 죽을 듯이 꿈 꿔라! 내 생명이 불타오르게 하라! 이것은 우리 생의 송고한 명령이다. 시

가을에는 서둘러 가을의 일을 끝내라

행착오와 실패를 겪고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가을에는 시작보다 끝이 더 많아진다. 더는 해매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건 허락되지 않는다.

가을철이면 어머니는 혼자서 배추 싹 포기를 소금물에 절이고 속을 채워 김장을 담그셨다. 그 김장김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먹을 한 해 양식이었다. 붉은 석양이 번질 무렵 김장을 마친 어머니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이 오려나 보다."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어머니가 스스로의 수고에 보내는 위로의 뜻이 담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우리는 김장을 담그지 않는다. 김장은 가을의 의례였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만큼 삶의 보람과 기쁨은 줄고 가슴에 허전함은 커진다.

이 계절은 벼들과 수다를 떨고, 음식을 먹고 술잔을 높이 들며 흥겨움에 도취할 때가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 숙고의 시간을 쏙아야 한다. 지금은 침잠의 계절, 기도의 계절, 은둔의 계절이다. 주말의 수도원을 찾아가 묵상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을 가져도 좋다. 올해 오랜 우정이 깨져 등진 벼들은 몇이나 되나? 그동안 너의 잘못으로 지키지 못한 약속은 없었는가? 무심코 뱉은 말로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었는가?

뇌우와 바람을 뚫고 지나가던 날들은 흘러갔다. 가을엔 쓸쓸함과 고독함이 번성한다.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서둘러 가을의 일들을 끝내야 한다! 이 가을은 두 번 반복하지 않을 것임으로. 밤은 저만치에서 커다란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너도 나도 저 아가리를 향해 걸어간다. '생자필멸'이란 단 하나 생의 진리다. 죽음이란 마른 잎처럼 바삭거리는 것. 우리는 가을의 언저리에서 쇠락하는 것들을 통해 그 진리의 한 조각을 엿볼 수가 있었다.

파랑새를 찾아 해맸으나 그것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임을! 인생은 뒤돌아 볼 때 이해되지만, 인간은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아직도 너는 슬프고 외로우나? 우리 모두 다 그렇다. 네가 가진 슬픔과 고독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양식이다. 이제 슬픔을 거두고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으리라. 생의 고마움을 노래하자. 봄마다 모란과 작약이 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사랑하는 이의 어깨에 다정하게 두를 팔을 가졌다는 것, 우정을 나눌 벼를 가졌다는 것, 이 녹색별과 외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것, 한 생을 잘 살다 떠날 수 있다는 것, 잃은 것도 있지만 늘 얻은 게 더 많았다는 것. 오, 이 생애 감사해!

우리에게 남은 가을은 곧 끝난다. 너는 가을의 남은 일들은 다 끝냈는가? 곧 진눈개비 내리치고 삭풍이 분다. 밤은 깊고 길게 머문다. 폭설이 퍼붓는 밤엔 두터운 눈구름에 가려져 별들을 볼 수가 없다. 흑한으로 모든 게 얼어붙는 밤에는 먹이감을 구하려고 인가까지 내려온 야생동물도 두었 생겨나다. 추위로 오소소 팔뚝에 소름이 돋는 아침, 하얀 눈발에 상형문자처럼 찍힌 너구리와 오소리들의 발자국들이 남아 있을 테다.

종교칼럼

경영과 복지를 함께하는 공장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치의 공유이다.

올해 여름 조그마한 공장의 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할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은 나에게 나눔의 사회를 확신 시켜주는 가슴 뿌듯한 현장이었다. 지인이 하는, 청소년들과 청년으로 이뤄진 조그마한 공장의 직원들과 원불교 성자인 영광 영산성지를 다녀오게 되었다. 여름이라 얼마나 더운지 차 밖을 나가면 한결வும்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날씨였다. 그러나 그들은 출발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여행이라는 들뜸도 있었겠지만 활기와 정겨움 그대로였다. 사장님으로 불리는 공장주는 칭호가 사장이지 오빠요, 친구요, 형이요, 선생님이었다. 때로는 살펴주고,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웃겨가며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나는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격의 없는 관계로 만들어 가는가 하고 지켜보게 되었다. 최 사장이 조그마한 전자 부품공장을 차린 것은 몇 해 전이다. 최 사장은 인근 고등학교에 산업체 학급을 병설해 주도록 요청하여 모든 직원을 학교에 보냈다.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관리하며 공부와 생활의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올해부터는 통학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공장을 학교 옆으로 옮겼다. 가난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배움에 길이 막힌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보다 나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 같다.

아직도 이들을 위해 하고싶은 일이 많다고 말하는 최 사장은 공장을 위해서 고용인을 두는 것인지, 고용인들을 위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그의 경영 태도가 '책지사람 경영자'를 부모처럼 의지하고 신뢰하는 뜨거운 인간관계로 변화시켰다고 생각되었다.

사람은 감동하는 동물이다. 최 사장의 이러한 노력은 협동과 근면을 불러왔고 전국의 같은 계열 부품공장 가운데서 가장 생산성이 뛰어나고 불합격률이 적은 우수한 공장으로 성장시켰다. 경영과 복지가 함께하는 이상적인 공장을 만든 것이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만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소하지만 남의 무거운 것을 들어준다든지, 닫히는 문을 잠시 잡아준다든지, 떠나려고 하는 버스를 조금 천천히 타면서 멀리서 뛰어오고 있는 학생을 기다려준다든지와 같이 작지만 착한 일을 하고 나서 내 스스로에게 하는 작은 칭찬은 나의 가치를 올려놓는다고 한다.

앞으로 최 사장은 배움의 길이 막힌 아이들을 위해서 이상적인 학교를 하나 세우는 것과 원불교의 좋은 교당 하나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그의 의지가 그대로 열매를 맺어 은혜로운 관계를 실현하는 흐뭇한 현상이 되었으면 한다.

기고

'꿀잼도시 광주'와 Y벨트 익사이팅 사업



이봉수 광주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

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중심 도시 이용 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10월 광주시가 그랜드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신활력벨트 중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에 대한 시민 설명회가 열렸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4대 가치로 맑은 물, 익사이팅, 예코, 연결을 꼽았다. 이를 위한 실현 방안으로 첫째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들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수로 관리되던 영산강 물을 먹는 물로의 전환을 통해 가뭄 때는 식수로, 평상시에는 영산강 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맑은 물 순환 공급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산강을 익사이팅과 꿀잼라인으로, 황룡강을 생태 여가 레저라인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산동고 익사이팅 존과 덕흥 서장 생태 조망 명소, 승촌남만과 힐링의 섬 등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는 물길, 숲길, 사람길을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황룡강 30리 길, 영산강 70리 길을 더해 걷고 싶은 100리 길로 연결하고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Y 브릿지를 만들어 공방 이전과 함께 새로운 광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핵심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민간투자자와 기존에 국비로 확보된 예산을 연계하는 방향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꾀하고 중앙정부,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국비 확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정책 적극 활용 등을 제안했다.

시는 Y벨트 익사이팅 사업이 100년을 열기 위한 미래의 구상으로 광주를 세계적 수준의 생태와 익사이팅, 역사 친수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자 영산강과 서해안 4대 강이 나가는 새로운 미래를 담은 장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큰 그림으로 프로젝트의 기본 구상이 제시돼 변화의 모습을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사업적인 부분에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틀이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 도시, 삶과 일, 여가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 재창조와 같은 도시공간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미래 광주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의 변화를 꿈꾸고,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광주시대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영산강 수질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점이 의미가 있다. 수질 문제는 장기 과제인 만큼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의 필요성도 절실한 만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Y프로젝트는 가장 큰 관심인 영산강 수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시민과 전문가, 행정, 의회 등 범광주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경쟁 돌입 복합쇼핑몰... 잇지 말아야 할것은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광주시를 '꿀잼도시'로 바꿔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복합쇼핑몰 3인방이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그제 '더현대 광주' 건립 등을 담은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 협상 조정협의회를 열고 사업자들이 내는 공공기여 액수와 비율을 결정했다.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지자체에 돌려주는 것으로, 광주시는 사업자인 휴먼스튜디오 측에 예상 개발이익 1조 835억 원의 54.4%인 999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고 '더현대 광주' 건립에 나서게 된다. 더현대 광주는 '더현대 서울'의 1.5배 규모로 다섯가지 테마를 융합한 국내 첫 문화 복합몰로 지어질 예정이다. 며칠전에는 광주신세계가 현재보다 4배로 키우는 백화점 확장 계획 부지를 이마트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내 유스퀘

어 문화관으로 변경했다. 전격적인 부지 변경은 터미널을 중심으로 쇼핑·문화·예술을 복합한 백화점을 지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신세계프라퍼티가 1조 3000억 원을 투자해 어등산관광단지에 추진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스타필드 건립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신세계측은 광주시와 연말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처럼 복합쇼핑몰 3인방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꿀잼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숙원사업인만큼 차질없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기 기대 된다. 다만 한가지 잇지 말아야 할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은 블랙홀처럼 상권을 빨아들일 것이 자명하다. 그런만큼 소상공인도 상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

5·18 보상신청 저조...적극적인 홍보 나서야

8년 만에 재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절차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신청 접수 마감일이 오는 31일까지도 한달 남았지만 신청 대상이나 보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제8차 5·18 관련자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13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사실조사반,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장애등급판정 분과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과 액수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상심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서다.

물론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기준을 세워야 하는 시한은 특별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법률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제8차

보상에서 신규 대상자로 선정된 성폭력피해자, 해직·학사징계자 등은 구체적인 신청 기준조차 없어 자신이 보상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7차 보상에 비해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실시된 1차 보상에서는 2693명, 2차에서는 2788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이후 3차 837명, 4차 868명, 5차 527명, 6차 1008명, 7차 506명 등 지급까지 9227명이 보상 신청을 했다. 신청자 수가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홍보 부족이다. 호환대상자 등 명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훈부나 광주시가 독려하지 않는 것이다. 유족회 역시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 소극적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 5·18 단체들은 5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인식하고 언어로 기억하며 언어로 생각한다. 우리는 언어의 틀에 의해서만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고 인간은 언어의 집에 산다"고 말했다.

사람이나 사물에는 이름이 있고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존재를 이해한다. 이름이 없거나 이름을 모르면 그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다. '코끼리'라는 언어를 모르면서 '코끼리'라는 동물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김춘수의 시 '꽃'은 이러한 존재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강조한다. "말은 생각을 담은 그릇이다/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생각이 어둡거나 거칠면/ 말도 또한 거칠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로써/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존재의 집이라고 한다."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고 말했다. 내가 모르는 단어를 존재하는 세계는 알 수가 없다. 언어의 크기가 생각의 크기이고 내 언어의 수준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세계의 전부라는 의미다.

언격(言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언어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나와 관계를 맺으며 '꽃'이 되듯이 인간은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고 소통하는 도구가 바로 언어다.

한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과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범정 스님은 '존재의 집'이라는 시를 통해 말(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언어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타인을 비난할 때 그 부도까지 끌어들이고, 차마 입에 올리지조차 민망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보다 정치인들의 발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사람을 직접 평가하기 좋은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그가 쓰고 있는 언어를 보면 된다. 언어의 레벨이 인생의 레벨이고 언격(言格)이 곧 인격(人格)이다. /유재관 편집담당1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본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획 관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